

일.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인가?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것인가?

❖ 바울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(빌 1:10-20, 25-26)

-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했습니다(골 1:24; 고후 11:23-27). 물론 그가 고난 자체를 즐긴 것이 아니라, 자신의 고난의 결실, 특히 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(골 1:24; 고후 11:28).
-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까지 따라함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(빌 1:20).
-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죽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, 교회의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옥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계속 섬기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(빌 1:19, 25-26).
-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감수해야 하며,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(딤후 3:12).

❖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분을 위해 삶 (빌 1:21-22)

- 모든 고통의 뿌리는 오늘날 선과 악, 혹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우시는 우주적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.
-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며, 영적 무기들로 싸워야 합니다. 적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적인 무기, 즉 거짓말, 비난, 조직의 압력 등을 사용합니다.
-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정의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(고후 6:4-7) 이 무기들로 적의 굳건한 요새들을 무너뜨립니다(고후 10:3-5).
- 그런데 전투에서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? 바울은 의인의 죽음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(빌 1:21).
-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원수가 쳐들어 올 수 없는 곳으로 옮겨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(잠 14:32; 이사야 57:1).

❖ 양갈래 길에 선 바울 (빌 1:23-24)

- 자신이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, 바울은 양갈래 길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(빌 1:23-24):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함. 아니면, 세상에 남아 계속 교회를 돋는 것.
- 이 구절만 보면, 마치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듯 하지만, 이는 다른 성경 구절들(전 9:5; 시 6:5)과 모순됩니다
- 그리고 같은 편지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(빌 3:8-11).
- 또 바울은 다른 편지서에서 우리 몸은 낡아 무너져 없어지는 장막과 같다고 말하면서, 이 장막이 무너져야 (죽어야) 불멸의 옷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(고후 5:1-4). 그러나 이 변화는 죽는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(고전 15:42, 51-54).

이.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의미는?

❖ 복음을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(빌 1:27)

- “합당한 행실”이라고 번역된 그리스 단어는 *politeuomai*로 “시민으로서 살다”라는 뜻입니다.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(빌 3:20).
-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.
- 바울은 한 마음으로 뭉치는 교회라는 주제의 서두로 이 교훈을 사용했습니다.
- 그는 개인의 교만과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이 교회안에서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품위를 갖춘 태도로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.

❖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십시오 (빌 1:27-30)

- 의롭고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갈등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(빌 1:30). 오히려 하나님께서 “흠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”라고 칭찬하신 육 조차도 원수의 계략으로 인해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(육 1:8).
-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서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.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(빌 1:27b).
- 이러한 한 목적으로 뭉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연구가 필수 조건입니다(엡 6:18; 빌 2:16).
- 악에 맞서 싸울 때, 적들의 위협으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(빌 1:28).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.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(눅 10:18; 골 2:15).